

담양 337농가 年 1억 이상 매출

지난해 평균 2억4천156만원 ... 일반농가의 4.3배

축산농 173가구 최다

지난해 연간 1억이상 매출을 올린 담양지역 농가는 모두 337가구로 가구당 평균 매출액은 일반농가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유가와 사료값 인상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 소득은 1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담양군이 관내 농업인 소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한 해 2천240 농가에서 '조수익(매출

액)' 기준 1천234억7천282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1억이상의 조수익을 올린 농가는 337가구로 이들 농가의 가구당 평균 매출액은 2억4천156만원으로 일반농가보다 4.3배나 높았다.

1억이상 고소득 농가를 작목별로 보면 축산농가가 173가구에 481억4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채소 138농가 187억6천900만원 ▲수도작(벼) 10농가 13억2천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이 1억원을 넘는 농가도 42가구에 총액이 122억4천700만원으로 가구당 2억9천15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매출액 1억원 이상 농가 수는 1년 전인 2006년의 131농가(448억8천1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가구당 실제 소득은 2006년에 비해 2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고유가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늘어남에 반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된 시설화훼 농가는 소득이 전년에 비해 47.3%나 급감했고, 사료값은 오르는데 반해 출하가격은 하락한 한우 등 축산농가도 17.2% 감소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벼농사를 지으며 소를 키우는 '복합농가'의 경우 대표 소득을 기준으로 작목을 분류했다"면서 "작목별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한 만큼 개별 농가별로 매출액과 소득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강진만 '지주식 김' 채취 한창

청정해역인 강진만에서 '지주식 김' 채취가 한창이다. 지주식은 말뚝을 박은 뒤 김발을 걸어 하루 8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시키는 전통 생산 기법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 1속 당 4천원에서 5천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강진군청 '흡연 천국'

구내식당 등 담배 풍조 '수북' 금연구역 단속 견수도 '제로'

공공기관 건물로 금연구역인 강진군 청사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하 구내식당의 경우 식탁마다 버섯이 재떨이가 놓여 있는 등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하고 있다.

29일 강진군청내 지하 직원식당. 한켠에서는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고, 인근 식탁에서는 식사를 마친 3명의 공무원이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비흡연자인 직원 A씨는 "식사 도중 담배냄새가 풍겨오면 밥맛이 싹 떨어진다"면서 "같은 직원들끼리 제대로 혐의를 못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 내 식당 중 담배를 피우는 곳은 강진군청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공서 건물은 화장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강진군청 화장실내 쓰레기통 곳곳에 담배 풍조가 수북했다. 지난 2006년 7월 '금연구역 지정령' 확대 시행

이후 관공서 내 흡연이 금지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으나 단속 주체인 강진군청에서는 여전히 흡연 천국인 셈이다.

이처럼 집안 단속도 못하다 보니, 강진 금연구역 단속 견수도 제로다.

강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 계도성 차원에서 홍보에 주력하는 관계로 단속 견수가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한글 교육·출신국별 모임 등 농촌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농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촌공사 전남도본부가 '농촌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을 펼친다.

전남도본부는 국제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 및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과 농지규모화 사업 시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한국

문화이해와 농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출신국별 모임과 고향방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봉조 본부장은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이 언어와 문화차이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도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 한방산업진흥원' 10월 남도대학에 개원

장흥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이끌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오는 10월 장흥 남도대학에 문을 연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50억원을 들여 남도대학 내 2천185㎡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519㎡의 유리온실을 짓고 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기능성 식품 개발 ▲화장품 및 생약제제 연구 등을 맡게 되며 ▲한약제품 품질관리와 품질 인증 ▲우수 한약 종자 재배 및 보급 등도 담당한다.

도는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생약초 가공공장 등을 조성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새얼굴

"다양한 농업인 지원사업 펴졌다"

이원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

"농업인 실의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호(52) 신임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다양한 농업인 지원사업을 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순천 출신인 이 지부장은 지난

76년 농협에 입사해 동순천지점장과 전남지역본부 경영검사부장, 순천시지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오승미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심비디움 직판 행사

2월 1일·25~2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전남 수출양육 연구회가 오는 2월 1일과 25~27일 전남도청 등에서 심비디움 직판 행사를 갖는다. 심비디움은 구랍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폰테이너 22개(7만여개) 분량(14억원 상당)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이번 직판행사에서는 도랑·분홍·빨강·초록 색깔의 심비디움이 개당 1~2만원선에 판매된다.

심비디움은 "공기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음이온을 뿜어내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송기동기자 song@

고흥 도양읍사무소, 도민체전 친절 캠페인



고흥군 도양읍사무소(읍장 정희성)가 설과 오는 4월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24일 펼쳐진 캠페인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공무원,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친절 홍보문구가 새겨진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숙박업소, 식

당, 수혈 위관장 등을 방문해 친절과 청결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유인물 등을 배부했다.

읍사무소는 각 마을별 설맞이 대청소 및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담양 사랑병원,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담양 사랑병원(대표원장 강상진)이 지난 24일 담양군 노인회관에서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담양 사랑병원은 이날 복지센터 소속 '노인 돌봄미' 24명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의 이해와 노인병 특징 등을 교육했다.

일일 강사로 나선 강상진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환자 관리 등 다양한

사례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담양 노인복지센터(소장 윤창희)는 앞으로 담양 사랑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노인 돌봄미'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실시, 관내 100여 명의 거동 불편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2008년 전액국비 교육생 모집

구분	학과	모집인원	수강료	수업기간	수업장소
대학	행정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경영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법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전문대학	관광경영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호텔경영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관광문화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관광영어통역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고등학교	관광경영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호텔경영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관광문화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관광영어통역학	10명	0원	1년	전남대학교

문의처: 전남대학교 입학처 (062-270-1111) / 062-270-111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방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 1. 묘지 소유권 불분명: 묘지 소유권 불분명, 상속권 다툼, 상속세 부담, 상속재산 분할 소송 등
- 2. 묘지 관리비 부담: 묘지 관리비 부담, 관리비 인상, 관리비 미납 등
- 3. 묘지 환경 악화: 묘지 환경 악화, 묘지 훼손, 묘지 불법 개발 등
- 4. 묘지 안전사고: 묘지 안전사고, 묘지 붕괴, 묘지 화재 등

문의처: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062-270-1111) / 062-270-1111